

□ '차 없는 거리' 인사동을 다녀와서

문화 황폐화로부터의 마지막 탈출구

전통문화거리, 백년대계로 보존해야

시민들의 교양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차 없는 거리' 요즘 인사동을 생각할 때 누구나 이 말을 떠올리게 된다.

최근 전통문화거리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사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인사동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든 주축자는 88올림픽때 외국인에게 전통문화를 보여주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인사동보존회에서 1987년 10월 중순부터 1년에 한번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다.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시행해 오다가 지난 4월 13일부터는 당국의 허락을 받아 매주 일요일에 한해 차 없는 거리가 되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가족단위의 사람들과 각 나라의 외국인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로 인사동거리는 거의 발디딜 틈이 없다.

차가 다니지 않아 거리 어느 곳이나 아이들은 자유로이 다

닐 수 있다. 연인과 학생들도 차격정 없이 편히 거리 곳곳을 구경한다. 매주 일요일마다 인사동을 온다는 이미경(동국대)은 "전통문화의 거리로서 차가 다니지 않아 정말 좋다"며 "사람사는 소리가 나고 마치 조선시대의 한 거리를 보는 것 같다"고 친구들과 병곳이 웃으며 말한다.

원래 인사동은 이조시대의 도화원이 위치하던 곳으로 미술활동의 중심이며 약 1백년 전부터 고서화, 고서적, 금속 및 목기, 고가구 등의 고미술과 편방, 전통음식을 주축으로 한 상가로 발전해온 지역이다.

지금의 인사동은 옛 전통문화를 살려서 종합적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런 인사동을 일요일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서 그 효과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민과 학생들의 교양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예술문화



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옛전통문화와 많은 동서양 미술품을 보여주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요즘 전통문화들을 소개하고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장소는 그리 흔하지 않다. 과거에는 대학교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향락의 장

소로 바뀌어 의미가 변질되었다.

대학교 곳곳에 전통문화나 연극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는 장소가 사라졌다. 대신 술집이나 노래방들이 들어서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놀이터가 되버린 것이다.

인사동은 이제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는 곳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동 역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안국동 사거리나 종로에서 인사동으로의 진입로가 일요일



▲ 전통공예품을 팔고 있어 옛 정취를 느끼게 해 준다.

▲ 평소에는 거의 접해 볼 수 없었던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

에는 통제되어 있어 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평소에도 잘 막히는 곳이지만 일요일에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며 "일요일에 교통경찰을 좀더 많이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문화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운점도 있다. 우리전통도 좋지만 일요일에 외국 상인들이 상품을 팔수 없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의 옛 전통문화와 함께 다른 나라의 문화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사동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인사동 곳곳에 술집이 들어서고 있다. 전통문화의 산장소로서 술집들이 들어

〈김동혁 기자〉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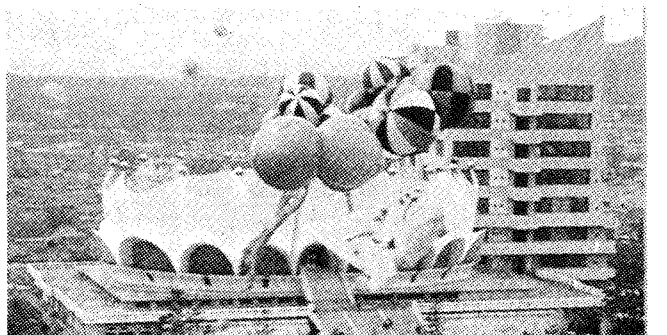
⑩ 지혜를 찾는 항해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우리 학교에는 커다란 함성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발전하여 항해하는 모습을 담은 건축물이 있다. 크라운관에 붙은 학생회관과 언어교

육 연구원이 바로 그것이다.

대해를 항해하는 커다란 배의 돛처럼 10층의 학생회관은 4층으로 된 크라운관의 선체 지붕모양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희망과 영광과 환희에 찬 내일의 세계를 이룩해 보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특히 돛 모양은 젊은 시절의 대담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인생의 항로를 힘차게 항진해 보라는 의지를 심어주려 한 것이다. 항해하는 배와 돛의 형태는 거북선 모양을 한 언어교육 연구원(1971년)에도 깃들여 있다.



▲ 힘차게 항진하는 지혜의 항선 크라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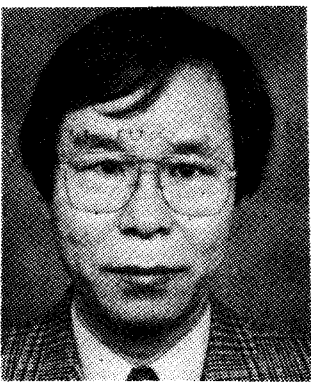
본교 박물관에는 고려시대 청동 항해무늬 거울이 있다. 거울은 돌, 청동, 은 등을 소재로 하여 청동기 시대부터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청동거울은 다뉴베 문명, 조몬경 등의 형태로 통치자나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거울에는 생명의 모태인 바다에서 우주의 이와 기가 어우러져 순환하는 태극의 운동을 상징하는 듯한 물결 속에 항해하는 배의 모양이 묘사되어 있다. 바다는 해탈의 자리로 호연지기를 함양하는 수양의 도량을 상징하기도 해 청동 거울 속의 배는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인격의 도야 가운데 영원한 지혜를 찾아 항해하는 수도자를 표상하는 것이다.

1949년 개교 이래 다가 오는 21세기를 준비하며 힘찬 발전과 함께 항해를 계속해 온 경희는 개교 48주년을 더하여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항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인사전통문화보존회 이정수(홍보담당)씨

“인사동 거리는 산 교육장”

인터뷰



인사동이 전통문화거리로 불리게 된 이유는

전통문화거리는 인사동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자랑거리이다. 고미술과 현대미술의 개성있는 작품들이 있는 산미술관 때문에 아닐까 한다. 두 미술품들의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곳들을 다녀왔지만 인사동거리 같은 곳은 없었다.

일요일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요즘 경기 침체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익성 높은 사업 예를 들면 카페, 커피숍, 패스트푸드점들을 경영하기 원하고 있다. 그래서 옛 전시장가게, 화랑들이 변화하거나 없어져 가고 있다. 전통문화 실존회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일요일에 한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든 것이다. 차가 다니면 모든 것이 자꾸 변해간다. 욕심 같아서는 1년365일 모두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싶다.

주로 무엇을 보여주고 파는지.

매주 일요일은 문화장터로 축제 분위기다. 문화장터에서는 고미술품(도자기, 청자, 백자, 민속품 등)과 현대 미술품, 판화, 조각품 등 많은 예술품들이 주축을 이룬다. 음식은 취급을 안하려고 했다. 거리 가 지저분해 미관상 좋지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 맛

을 살려 인절미, 엿을 파는 것은 허락하고 있다. 부대행사로서 시민들이 도자기 만들 자리를 제공하고 놀이마당(판대놀이, 줄타기, 봉산탈춤 등)을 보여 준다.

전통 상품들을 팔면서 안 좋은 우려도 있었을텐데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고가의 상품들은 상점일에 있고 일요일의 문화장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부담없이 접근해 만져보고 느끼게 해주는 산교육장이다.

이곳을 찾는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사동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손수 자원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전통문화들을 다른 곳에도 홍보해서 인사동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그리고 인사동 발전에 좋은 지적사항이나 추구할 것에 조언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부〉

문화단신

정경화 Free Concert

· 록 블루스의 실력과 보컬리스트로 인정받은 가수 새로운 스타일의 록발라드 '나에게로의 초대'를 비롯 '슬픈 사랑의 노래' 등 주옥같은 노래를 선보인다.
· 6월 10일(화)부터 6월 15일(일)까지 평일 7시 30분, 주말 4시/7시
· 대학로 라이브 1관
· ☎ 766-5417

제7회 서울극제만화전

· 전세계 80여개국의 만화작가들이 참여해 기발한 창작품들을 선보이는 명실상부한 만화올림픽
· 지구환경(For Life On Earth)이라는 주제로 환경문제를 만화에 담아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
· 오는 5일(목)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 ☎ 593-4477

안지환 콘서트
'NOSTALG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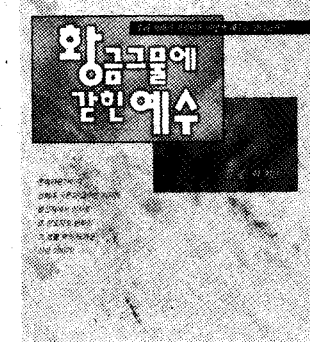
· 폭발적인 가창력과 진솔한 무대매너로 언더그라운드 최고의 가수로 평가받고 있다.
· '소금인형', '자유' 등 가슴으로 부를 수 있는 서정적인 노래를 들려준다.
· 강산애, 이승환, 신효범등이 게스트로 참여한다.
· 6월 24일부터 6월 29일(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4시/7시
· 연강홀
· ☎ 708-5001

□ '황금 그물에 갇힌 예수(김종희 저)' 서평
자기 삶을 짚어 보는 에세이

박 이 도
(국문과 교수)

오랜만에 읽히는 에세이집을 대할 수 있었다. 점점 더 머뭇거리는 필자의 독서습관을 깨는 단숨에 읽어낸 참독이었다.

저자가 밝혔듯이 지식인이 범하기 쉬운 현학적 표현이나 지식일변도의 건강부회를 극도로 자제하며 평이하고 간결한 문체로 썼기에 읽는 이에게 한결 유쾌한 인상을 준다. 이 에세이집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삶을 짚어보고 신앙에 힘을 얻기 위한 글이 많다. 고로 문학적인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는 체험을 풍부한 예로 대비시키며 자신의 신앙적 감동을 고백하고 있다.
"보라! 천지는 조용한 가



운데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있다. 해와 달은 주야로 바뀌면서 그 빛은 천년 만년 변함이 없다. (하락)

이는 채로담에 나오는 귀절인데 이를 인용 어떤 회우를 마무리지었을 때 근무하던 부대의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저자를 인격적으로 존경하며 훌륭한 후원자로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인연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저자의 지식에 의한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은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로렘나루 아래에서'에는 기독교인에게 따르는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결국은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고난을 비켜가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고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확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저자 자신이 '알기위해 믿는다'는 신학적 명제에 걸맞게 자신의 체험적 신앙 고백일 것이다. 이 에세이집은 이성(理性)이 항상 회우하고 감동하는 종교적 진실에 대한 지식인의 체험적 고백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읽으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체험적 융합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에세이집이다.

언어로 세계로! 개 6월 2일

세계화!! 말이 술술 통합니다.

많은 외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원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문은 고기를 낚아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낚는 법은 가르쳐 드립니다.

- 영어회화: EFL코스, SIDE BY SIDE, INTERCHANGE, FREE TALK
- TOEIC종합: TOEIC L/C/R/G, 기초LISTENING, ENGLISH, TOEFL, VOCABULARY, AFRON, AMERICAN HEARING, SCREEN ENGLISH, 영작문, 영어순화, GRE/GMAT, 영문법, SAT, 대학원영어, 영어초급, 영어중급, 영어능력시험, NHK영어, 영어능력대학원 일본어회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주일특별반
- 매일 TOEIC, TOEFL 모의TEST 실시

청문외국어학원
738-5151 (대) 종로2가 종로서책

학원강사 연수교육

“
아직 취업이 결정되지 않았다구요?
여기 정말 매력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

4학년을 위한 특告

대상: 입시전과목 전공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기간: 4개월(대부분 중도 취업률)
교육: 주4~5일(오전, 오후, 저녁 중 택일)
취업: 사내 유망입시학과 및 A급 교육원장과 유망강사로 구성된 150여명의 자문교수가 직접 지도, 자문하여 100% 취업(기간내에 취업되지 못하면 취업 때까지 무료 재교육)
보수: 초임150만원부터 1000만원(취업과제없음)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단에 화랑과목, 전파번호 명기할 것)
제출: 110-110 평화로 우체국 사서함 368호
· 서류도착 순서대로 가용교육원인의 2배수 서류 심사하여 우원 및 전파로 개별 통보함
· 개인지도도 경쟁원자 우대(이력서에 기재함)
문의: 415-1796(6월9일자에 한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97 하계 대학(원)생 영어연수과정

참가대상

- 좀더 당당하게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대학(원)졸업예정자
- 이번 여름방학동안 유창한 영어실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대학(원)재학생

교육과정 안내

Conversational English
Survival English
TOEIC
Reading & Writing
Vocabulary & Usage
취업특강 및 설명회, 면접특강, 모의면접
인터넷특강

교육장소

외대어학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일정

- 기 간: '97.6.30 ~ 8.22 (월, 금, 공휴일 제외)
- 시 간: 오전반 09:00~12:50 (4시간)
오후반 13:00~16:50 (4시간)
- 총 교육시간: 152시간

모집인원

반별 12명(오전, 오후 각 10명)

참가비용

880,000원

원서접수 및 접수

'97.6.21(월) ~ 6.14(토) 09:00~19:00
단, 토요일은 09:00~15:00까지

면접시험

'97.6.21(토) 오전 9시부터

특기사항

- 철저한 출-결석관리 및 성적관리
- 외국인 강사, 외국인 학생들과의 합숙연수(3박4일)
- 집중적인 영어회화와 작문, 독해, 취업에 필요한 TOEIC 성향관리까지 (실전 TOEIC 3회)

■ 성적우수자 특전

본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유망 및 미취업학생지원금 제공

외대어학원
상 담 문 의: (02)568-1818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로부터 30m)